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2016년 02월 24일 수요일

KOSPI

1914.22 ▼-2.14 (-0.11%)

	2/19	2/22	2/23
증가	1916.24	1916.36	1914.22
등락	7.40	0.12	-2.14
등락폭(%)	0.39	0.01	-0.11
거래량(백만주)	310	267	325
거래대금(십억원)	3,794	3,427	3,917
시가총액(십억원)	1,172,222	1,172,328	1,171,043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642.31 ▼-7.83 (-1.20%)

	2/19	2/22	2/23
증가	644.56	650.14	642.31
등락	6.13	5.58	-7.83
등락폭(%)	0.96	0.87	-1.20
거래량(백만주)	445	528	687
거래대금(십억원)	2,841	2,817	3,491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기업의 배당 확대로 돌보이는 배당주

Focus ▶ 4p 참고

Quant Analyst 조승빈 sbcho@daishin.com

KOSPI200 기준, 현재까지 발표된 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배당금 총액은 전년대비 18.9% 증가. 순이익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잉여현금흐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2015년 KOSPI200 기준 배당수익률은 1.6%. 현재 3년만기 국고채 금리 1.48%를 상회.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저금리 환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더욱 높여주는 요인

증시일정 ▶ 2p

Market Data

Snap Shot ▶ 8p

Chart Alarm ▶ 11p

23일 KOSPI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11% 하락한 1,914.22에 거래 마감

매매 및 자금동향 ▶ 17p

주간 증시 일정

일	화	수	목	금
15	16	17	18	19
日 4Q GDP 잠정 (전기:1.3%, 발표:-1.4%) 日 12월 산업생산 확정 (전기:-1.4%, 발표:-1.7%) 中 1월 수출 (전기:-1.4%, 발표:-11.2%) 中 1월 수입 (전기:-7.6%, 발표:-18.8%)	EU 2월 ZEW 서베이 (전기:22.7, 발표:13.6) 韓 금통위	美 1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143K, 발표:1099K) 美 1월 건축허가 (전기:1204K, 발표:1202K) 美 1월 산업생산 (전기:-0.7%, 발표:0.9%)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日 1월 수출 (전기:-8.0, 발표:-12.9) 日 1월 수입 (전기:-18.0, 발표:-18.0) 中 1월 CPI (전기:1.6%, 발표:1.8%) EU 정상회의(18,19 일)	美 1월 CPI (전기:-0.1%, 발표:0.0%) EU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예비 (전기:-6.3, 발표:-8.8) EU 정상회의(18,19 일)
22	23	24	25	26
EU 2월 PMI 제조업 잠정 (전기:52.3, 예상:52.0) 日 2월 닛케이 PMI 제조업 잠정 (전기:52.3, 예상:52.0)	美 1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기:0.87%, 예상:--) 美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전기:98.1, 예상:97.3) 美 1월 기준주택매매 (전기:5.46m, 예상:5.34m) 獨 4Q GDP 확정 (전기:1.3%, 예상:1.3%) 獨 2월 IFO 기업환경 (전기:107.3, 예상:106.8)	美 1월 신규주택매매 (전기:544K, 예상:520K)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1월 내구재 주문 잠정 (전기:-5.0%, 예상:2.5%) EU 1월 CPI 확정 (전기:0.4%, 예상:0.4%) 韓 2월 소비자심리지수 (전기:100, 예상:--)	美 4Q GDP 수정 (전기:0.7%, 예상:0.4%) 美 2월 미시간소비자신뢰 확정 (전기:90.7, 예상:91.0) EU 2월 소비자자기대지수 확정 (전기:-8.8, 예상:--) 日 1월 CPI (신선식품제외) (전기:0.1%, 예상:0.0%) G20 회의(26~27 일)
29	3/1	2	3	4
日 1월 산업생산 잠정 (전기:-1.9%, 예상:--) EU 2월 CPI 예상 (전기:--, 예상:--) 美 2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 (전기:55.6, 예상:53.8)	韓 2월 수출 (전기:-18.5%, 예상:--) 韓 2월 수입 (전기:-20.1%, 예상:--) 中 2월 Caixin 제조업 PMI (전기:48.4, 예상:--) 美 2월 ISM 제조업지수 (전기:48.2, 예상:48.5) MSCI 정기 리밸런싱 편입	韓 1월 산업생산 (전기:-1.9%, 예상:--) 美 2월 ADP 취업자변동 (전기:205k, 예상:185k)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韓 2월 CPI (전기:0.8%, 예상:--) 中 2월 Caixin 서비스업 PMI (전기:52.4, 예상:--) 美 2월 ISM 비제조업지수 (전기:53.5, 예상:54) 美 1월 내구재주문 확정 (전기:--, 예상:--)	美 2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전기:151k, 예상:198k) 美 2월 실업률 (전기:4.9%, 예상:4.9%) 中 전인대 (5 일)
7	8	9	10	11
EU 3월 섹터투자자기대지수 (전기:6.0, 예상:--) 獨 1월 공장수주 (전기:-2.7%, 예상:--) IAEA 정례이사회(7~11 일)	EU 4Q GDP 잠정 (전기:0.3%, 예상:--) 獨 1월 산업생산 (전기:-2.2%, 예상:--) 日 4Q GDP 확정 (전기:-1.4%, 예상:--) 日 1월 경상수지 (전기:¥960.7b, 예상:--) EU 재무장관 회의	日 2월 M2 (전기:3.2%,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2월 CPI (전기:1.8%, 예상:--) 日 2월 PPI (전기:-3.1%, 예상:--) 韓 금통위 ECB 통화정책회의	獨 2월 CPI 확정 (전기:--, 예상:--) 中 2월 고정자산투자(농촌제외) (12 일) (전기:10.0%, 예상:--) 中 2월 산업생산 (12 일) (전기:6.1%, 예상:--)
14	15	16	17	18
美 2월 소매판매 (전기:0.2%, 예상:--) EU 1월 산업생산 (전기:-1.3%, 예상:--) 日 금정위 (14~15 일)	日 1월 산업생산 확정 (전기:--, 예상:--) 美 FOMC (15~16 일) 日 금정위 (14~15 일)	美 2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099k, 예상:--) 美 2월 건축허가 (전기:1202k, 예상:--) 美 2월 CPI (전기:0.0%, 예상:--) 美 2월 산업생산 (전기:0.9%, 예상:--) 美 FOMC (15~16 일)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EU 2월 CPI 확정 (전기:--, 예상:--) 日 2월 수출 (전기:-12.9, 예상:--) 日 2월 수입 (전기:-18.0, 예상:--) EU 정상회의 (17~18 일)	美 3월 미시간소비자신뢰 잠정 (전기:--, 예상:--) EU 정상회의 (17~18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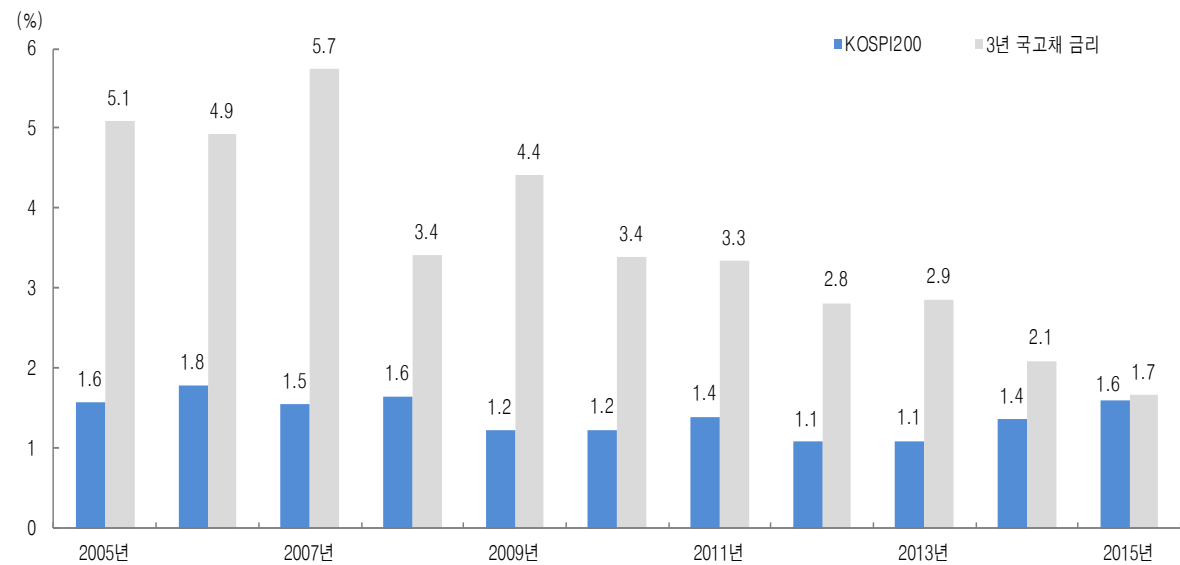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KOSPI 전망

- 유가 급등,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코스피 기술적 반등 가능. 그러나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할 시점. 정책 신뢰가 가장 강했던 일본에서 정책 실망이 발생. 추가 정책이 나오더라도 엔화 약세가 과거처럼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정책효과 약화는 2~3분기 대표적인 조정요인으로 예상했던 변수. 정책 신뢰 약화가 예상보다 빨리 나타났고, 이에 따라 엔케리 청산등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1분기 코스피 상승 가능성 낮아져
- 반등시 성장주 비중 축소, 수출주(IT, 자동차)와 가치주(Low-Vol)로 포트폴리오 압축

Today's Key Chart

KOSPI200 배당수익률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연말 기준)



- KOSPI200 기준, 현재까지 발표된 배당 현황을 살펴보면 배당금 총액은 전년대비 18.9% 증가
- 순이익증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배당이 확대될 수 있는 이유는 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잉여현금흐름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 2015년 KOSPI200 기준 배당수익률은 1.6%. 현재 3년만기 국고채 금리 1.48%를 상회
- 기업들의 배당 확대, 저금리 환경,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은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더욱 높여주는 요인

투자포커스

기업의 배당 확대로 돋보이는 배당주

Quant analyst 조승빈 sbcho@daishin.com

2015년 기말배당 전년대비 20% 가까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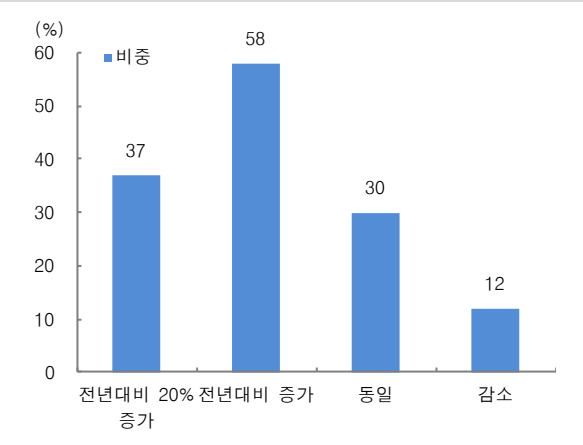
연초, 기업들의 잠정실적 발표 공시와 함께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또 하나의 공시는 바로 배당 결정 공시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정부가 추진한 배당확대정책과 2015년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기업의 투자 축소에 따른 보유 현금 확대 등으로 배당 증가의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현재까지 KOSPI200 구성 기업중 107개 기업이 배당을 공시했다. 전년도에 배당을 실시했던 100개 기업중 58개 기업의 주당배당금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20%이상 늘어난 기업도 27%나 된다. 반면, 배당을 줄인 기업은 12개에 불과했다. 작년 연말에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SK이노베이션, SBS, 삼성물산 등 7개 기업이 배당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현재까지 배당금 총액은 전년대비 18.9% 증가했다.

2015년 거래소 영업이익은 16.2% 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순이익(지배주주기준)은 9.4% 증가에 머물러 영업이익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순이익의 경우 한국전력의 부지매각에 따른 대규모 일회성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전력의 일회성이익을 제하고 볼 경우 시장전체 순이익증가율은 0.3%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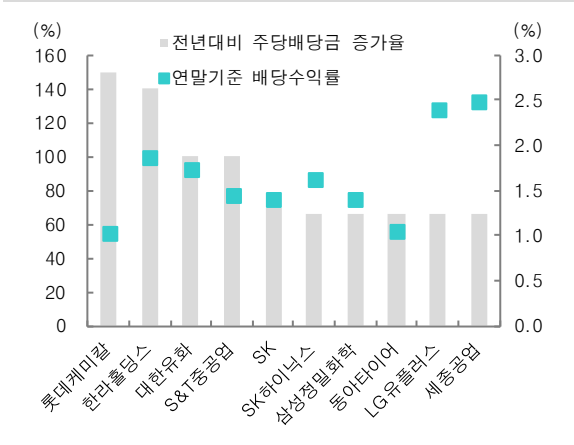
즉, 배당증가는 이익성장에 기반한 것이 아닌 기업들의 배당성향 확대가 주요인인 것이다.

그림 1. 전년대비 주당배당금 변화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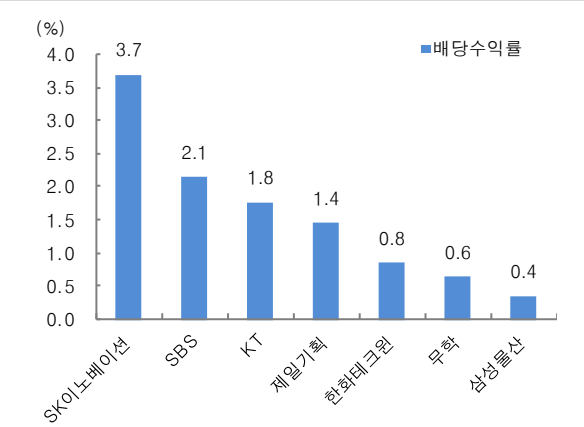
주: 2월 23일까지 공시기업 기준, KOSPI200 기업 대상
자료: Wsset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전년대비 주당배당금 증가 상위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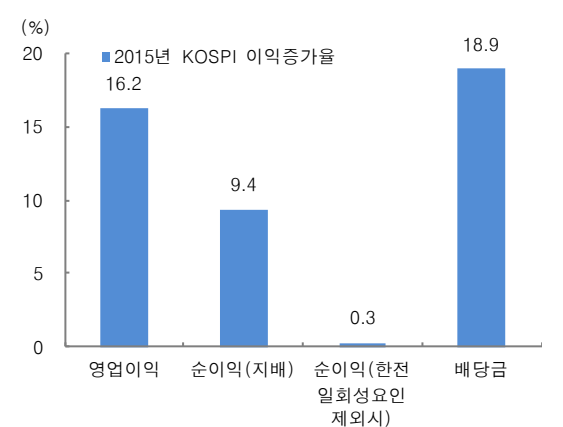
주: 2월 23일까지 공시기업 기준, KOSPI200 기업 대상
자료: Wsset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015년도 배당 신규 지급(지급 재개) 기업



주: 2월 23일까지 공시기업 기준. KOSPI200 기업 대상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거래소 2015년 이익증가율과 배당증가율 비교



주: 배당금은 현재까지 배당금을 발표한 기업의 연말 결산배당 기준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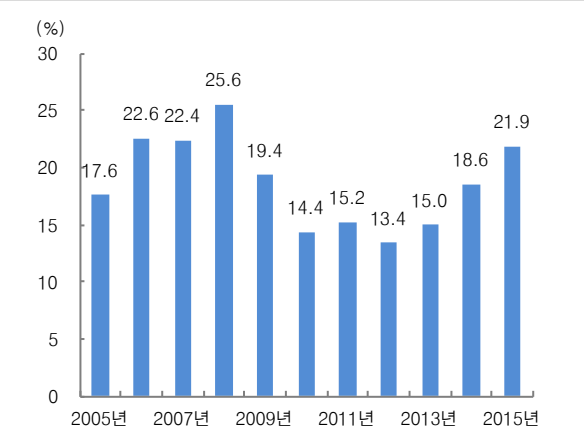
순이익 정제에도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이 확대되어 배당금 증가 가능

2014년 순이익 감소에도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면서 KOSPI200 기준 배당성향은 18.6%로 높아졌다. 아직 발표가 진행중인 2015년 배당이 현재까지 발표된 수준만큼 증가율을 유지한다면 2015년 배당성향은 2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실적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배당 확대가 가능한 이유는 기업들의 잉여현금흐름(영업활동현금흐름-설비투자)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2013년 제조업 기준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전년대비 10.8%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0.9% 증가에 머물면서 잉여현금흐름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4년 실적 부진으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설비투자규모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면서 잉여현금흐름은 전년대비 11.6% 상승했다. 이런 모습은 2015년에도 이어졌다. 2015년 3분기까지 누적 잉여현금흐름은 27.2조원으로 2014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규모를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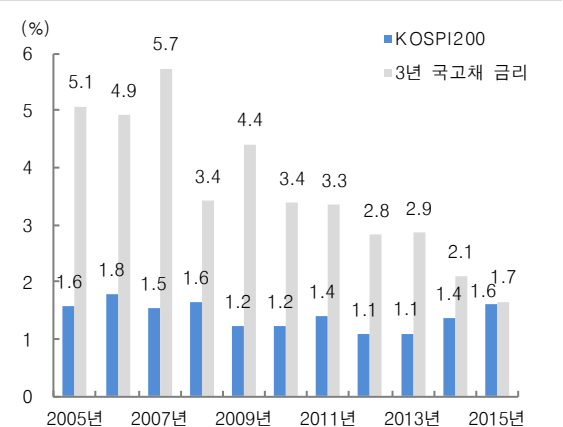
이렇듯 기업들의 투자가 빠르게 축소됨에 따라 실적 부진에도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림 5. KOSPI200 배당성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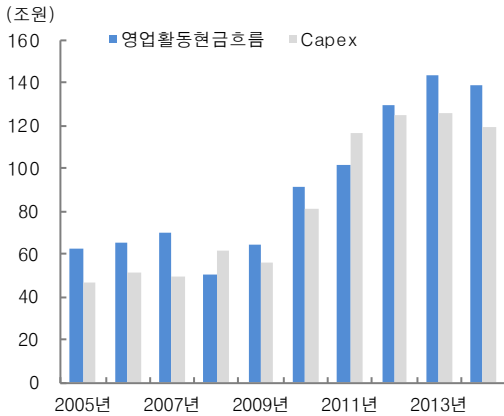
주: 2015년 배당성향은 현재까지 배당을 발표한 기업 기준 배당증가율 적용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KOSPI200배당수익률과 3년만기 국고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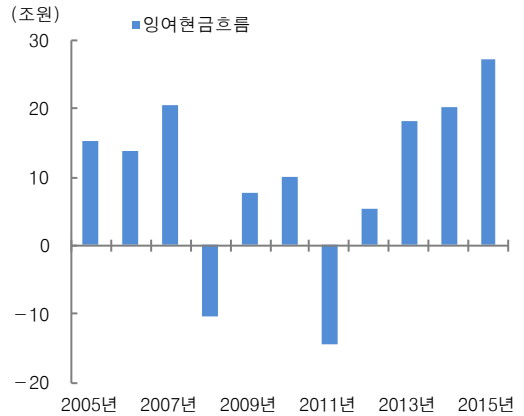
주: 배당수익률은 연간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말 기준
자료: WISEI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시장전체 영업활동현금흐름과 설비투자(Capex) 추이



주: 제조업 기준
자료: Woori,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시장전체 잉여현금흐름 추이



주: 제조업 기준
자료: Woori,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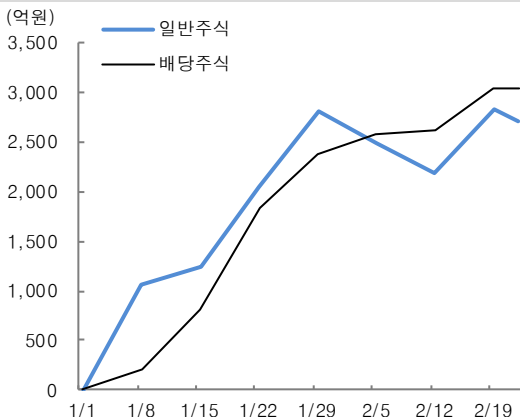
낮은 금리, 높아진 배당수익률로 배당주에 대한 관심 더욱 높아질 것

지수가 정체된 상황 속에 배당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전체 배당수익률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연말주가 기준 KOSPI200의 배당수익률은 1.6%(연간배당 기준)로 현재 3년만 기 국고채 금리 1.48%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

연초이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투신권의 매수세가 이어졌다. 일반 주식형의 경우 올해 들어 설정액이 2,700억원(연초대비 +1.1%) 늘어난 반면, 배당주식형의 경우 3,000억원(연초대비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주간 설정액 기준으로 일반주식형의 경우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배당주식형은 아직 유출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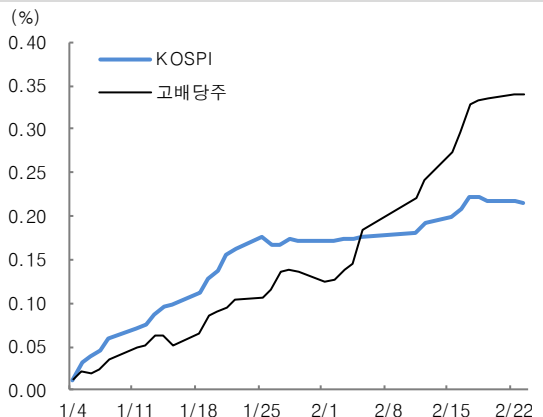
연말 배당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이 KOSPI200대비 높은 기업들의 투신권의 매수강도(유통시가총액대비 누적순매수금액)를 살펴보면 2월들어 고배당주에 대한 투신권의 매수강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과 함께 시장 변동성 확대가 고배당주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 2016년 펀드 유형별 자금 유출입 추이



주: 주간 설정액 변화 데이터 누적
자료: Woori,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KOSPI와 고배당주에 대한 투신 매수강도 비교



주: 매수강도는 누적순매수/유통시가총액
자료: Woori,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들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고, 저금리 환경이 이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말이 아니더라도 배당주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은 2015년에 순이익과 배당이 함께 늘어난 기업중 2016년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고배당주를 정리한 것이다. 이익성장과 함께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에 관심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1. 2015 년 순이익&배당 증가 기업중 2016 년 순이익 증가 예상되는 배당수익률 상위 기업

코드	종목명	2015년 주당 배당금 (원)	주가(2/23)	배당수익률(%)	2016년 이익 전망	
					순이익(십억원)	증가율(%)
A000060	메리츠화재	570	15,300	3.7	195.6	9.7
A096770	SK 이노베이션	4,800	148,500	3.2	1,446.5	77.6
A204320	만도	4,800	155,000	3.1	165.8	29.7
A021240	코웨이	2,800	96,600	2.9	371.6	8.3
A078930	GS	1,500	52,800	2.8	664.3	35.0
A192530	광주은행	200	7,810	2.6	89.8	98.1

자료: Wif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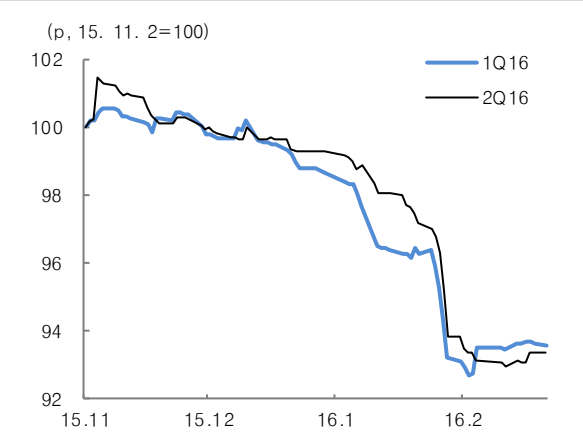
[Wednesday] 실적 컨센서스 및 밸류에이션

Quant analyst 조승빈 sbcho@daishin.com

실적 컨센서스 하향조정은 진정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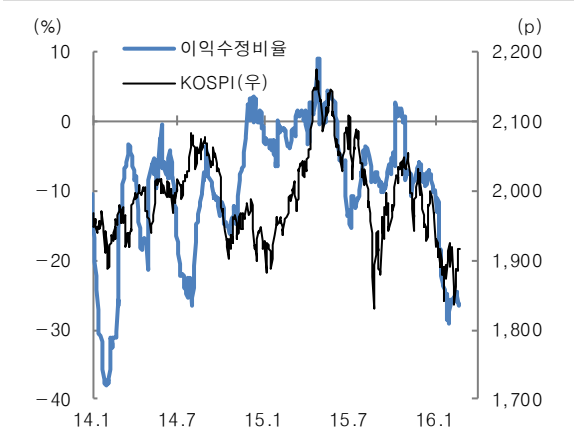
- 1. 실적 컨센서스 하향조정 진정: 시장전체 2016년 1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는 전주대비 0.04% 하락. 연초 급격하게 하락하던 실적 컨센서스는 2월 들어 진정되는 모습. 전주 대비 1Q16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상향조정 상위 업종은 조선, 화학, IT가전.
- 2.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10.8배: KOSPI는 2015년 하반기 이후 12개월 선행 PBR 10배 ~ 11배 사이에서 움직임을 나타냄. 최근 실적 하향조정으로 시장 EPS 낮아지고 있는 상황. 12개월 선행 PER 11배는 1,950p 수준

그림 11. 시장전체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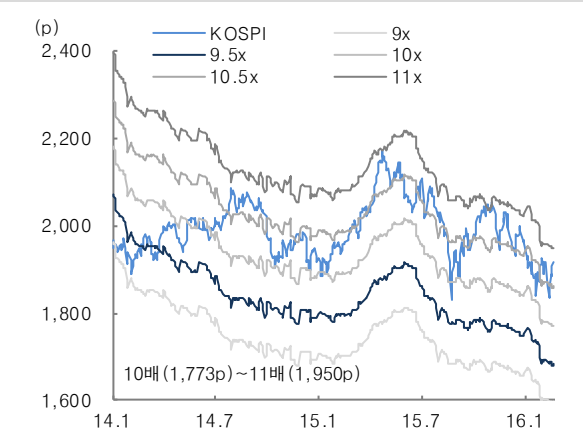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시장전체 이익수정비율과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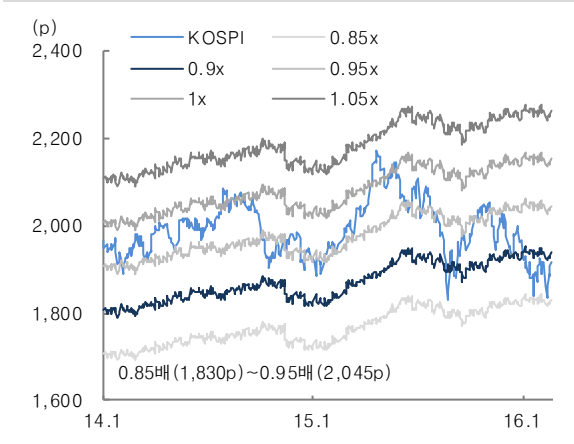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KOSPI 12개월 선행 PER 밴드 차트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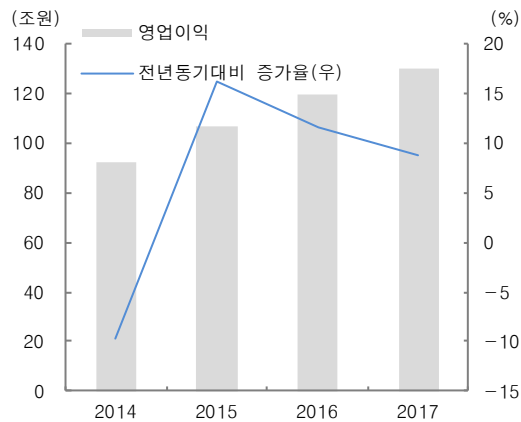
그림 14. KOSPI 12개월 선행 PBR 밴드 차트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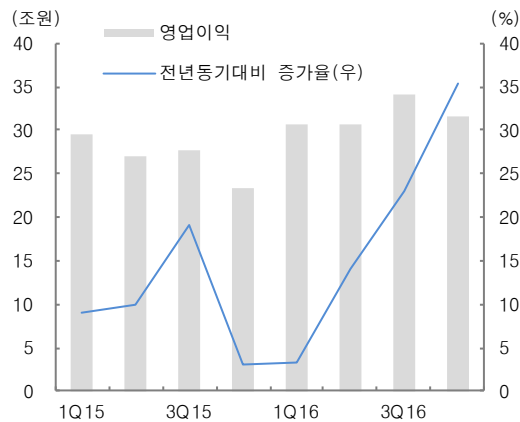
1. 실적 컨센서스 동향

그림 15. KOSPI 2016년 영업이익 11.6%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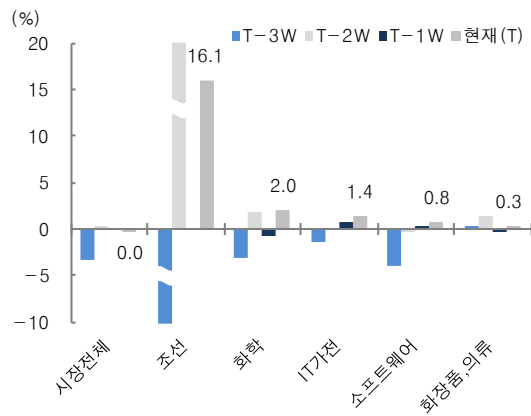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KOSPI 1Q16 영업이익의 3.3% 증가(y-y)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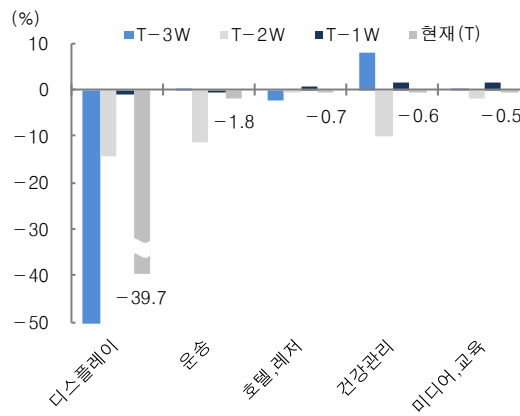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1Q16 영업이익의 전주대비 상향조정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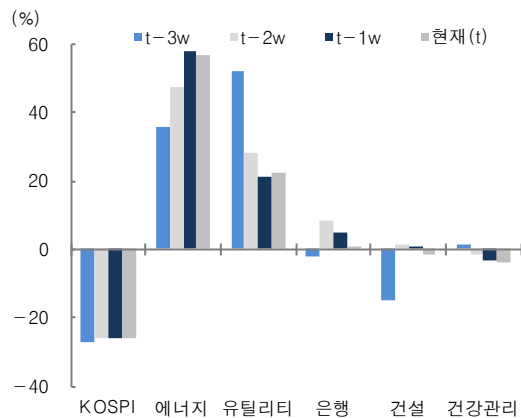
주: 최근 4주간 1Q16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전주대비 변화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1Q16 영업이익의 전주대비 하향조정 상위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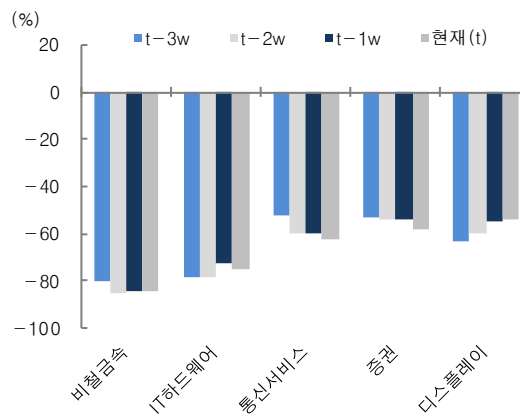
주: 최근 4주간 1Q16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전주대비 변화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9. 이익수정비율 상위 업종 최근 4주간 추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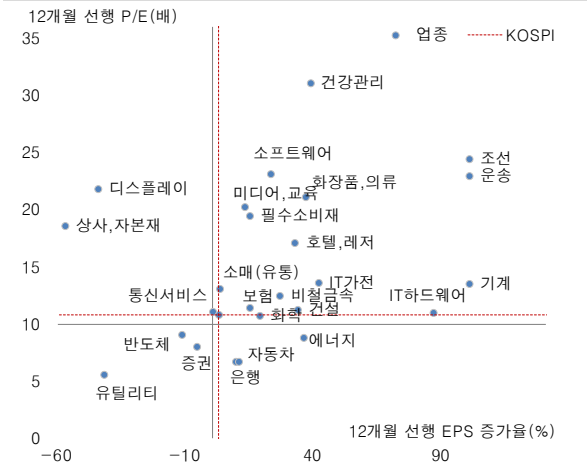
그림 20. 이익수정비율 하위 업종 최근 4주간 추이



자료: Fnguid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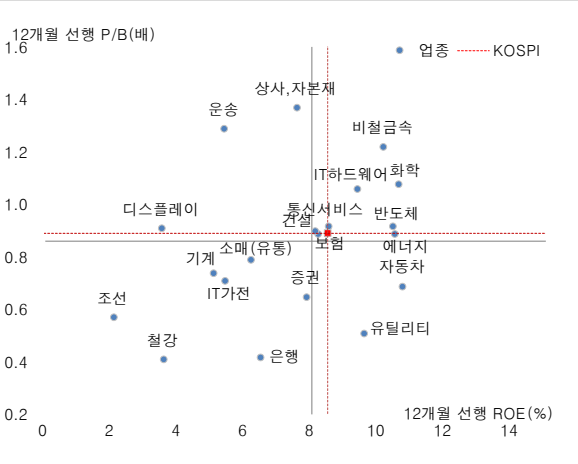
2. 밸류에이션 현황

그림 21. 업종별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과 P/E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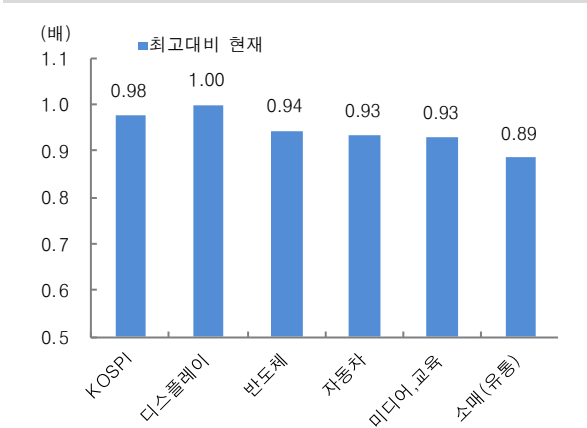
주: 빨간 점선이 KOSPI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2. 업종별 12개월 선행 ROE와 P/B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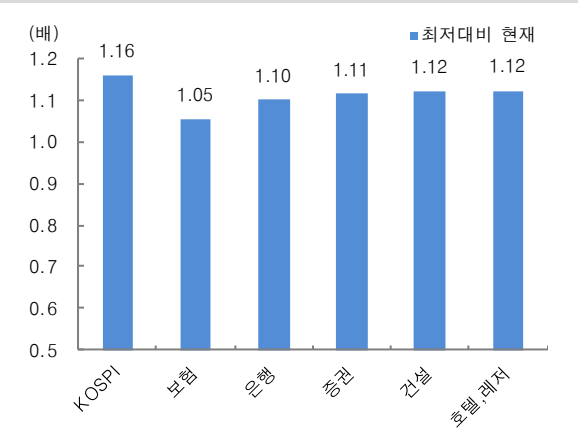
주: 빨간 점선이 KOSPI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3. 최근 2년 PER 고점대비 현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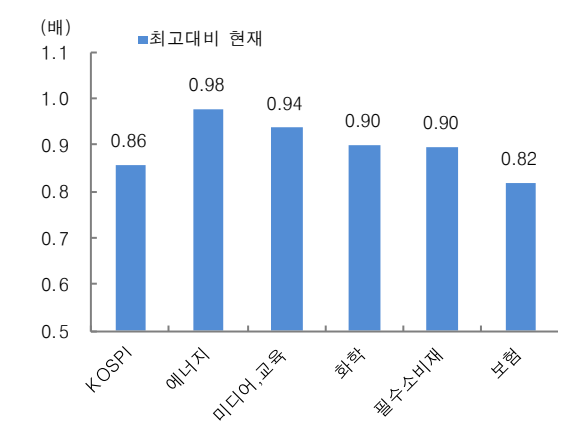
주: 1에 가까울수록 2년래 고점에 근접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4. 최근 2년 PER 저점대비 현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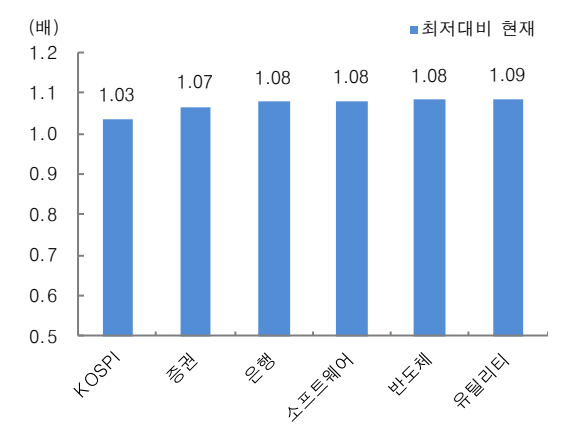
주: 1에 가까울수록 2년래 저점에 근접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5. 최근 2년 PBR 고점대비 현재 수준



주: 1에 가까울수록 2년래 고점에 근접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6. 최근 2년 PBR 저점대비 현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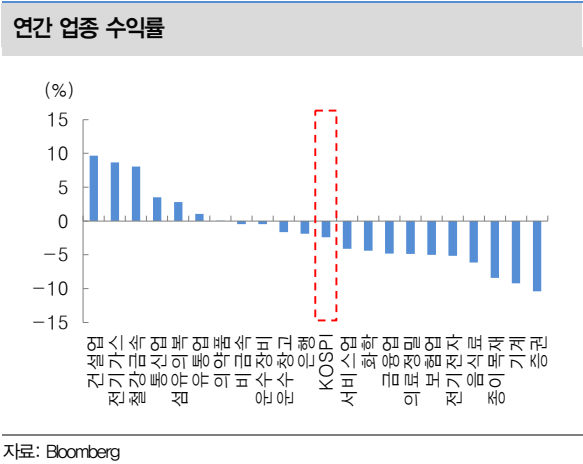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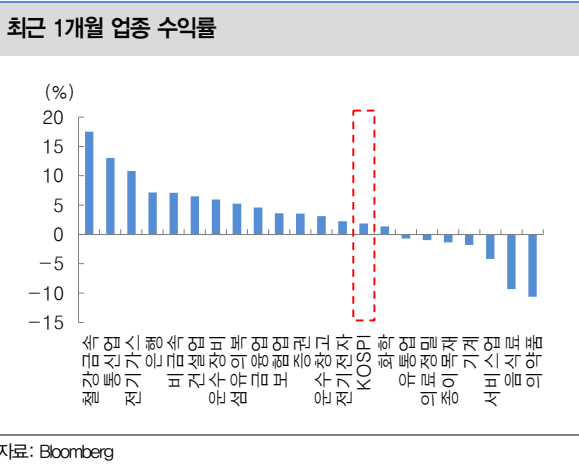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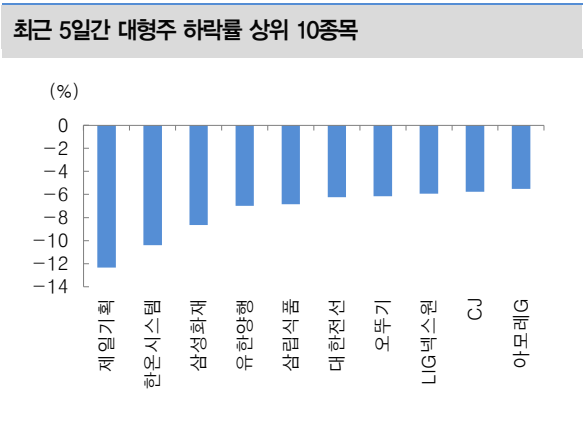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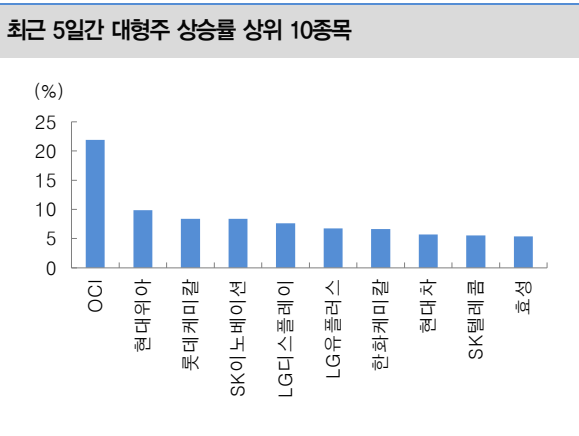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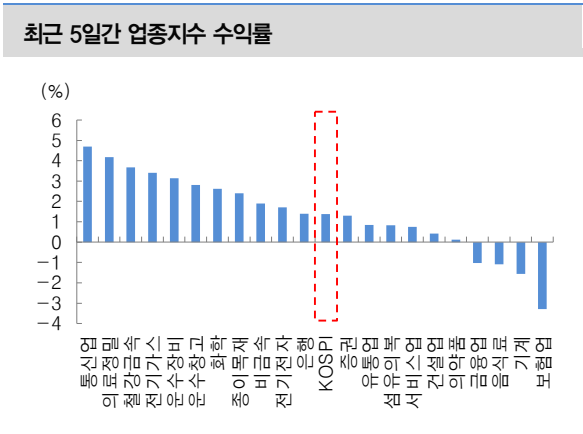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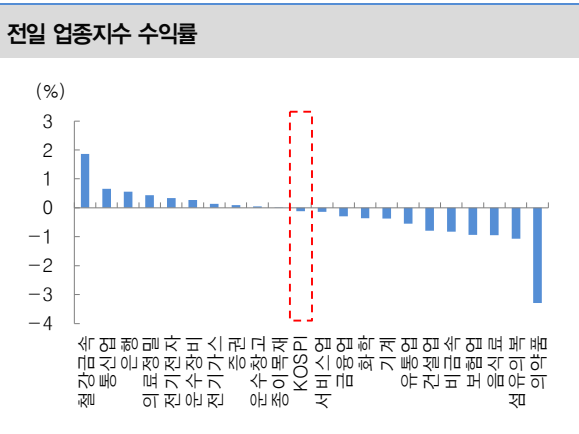


주: 1에 가까울수록 2년래 저점에 근접
자료: WiseFn,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Chart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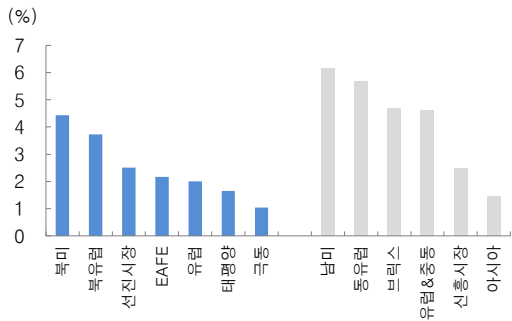
01. 주가 등락률
- 23일 KOSPI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0.11% 하락한 1,914.22에 거래 마감
 - 개인과 기관은 각각 2,480억원, 1,677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2,022억원 매수 우위

▶ 국내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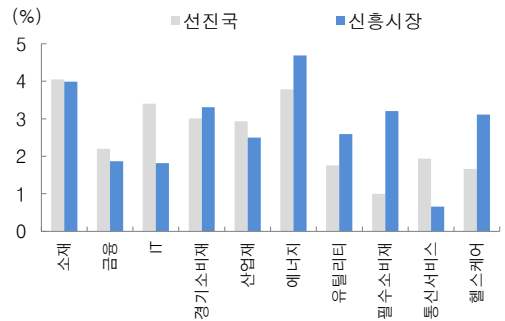
▶ 해외 증시

최근 5일간 MSCI 지역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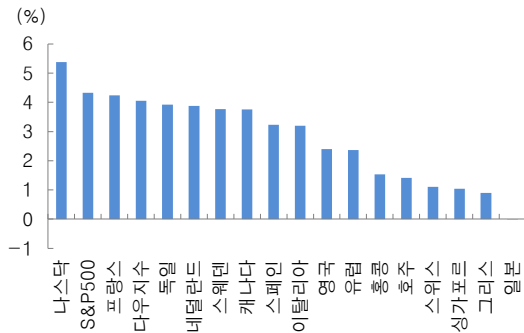
주: EAFE는 유럽, 호주, 국동아시아 지역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MSCI 산업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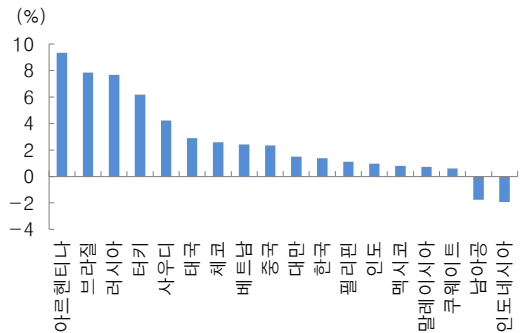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선진국 주요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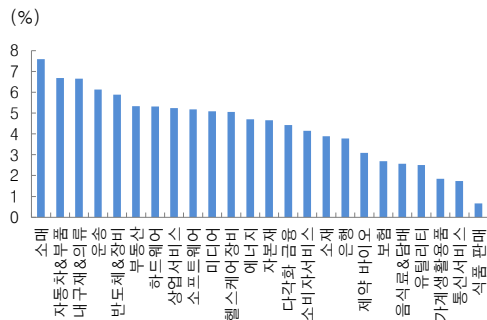


주: 그리스(ASE), 스페인(IBEX), 싱가포르(STI), 홍콩(HIS), 독일(DAX), 캐나다(S&P/TSX), 이탈리아(MIB), 프랑스(CAC), 유럽(SX5P), 호주(AS51), 네덜란드(AEX), 인도(SENSEX), 사우디(SASEDX), 필리핀(PCOMP), 태국(SET), 베트남(VNINDEX), 쿠웨이트(KWSEDX), 인도네시아(JCI), 브라질(BOV), 한국(KOSPI), 아르헨티나(MERVAL), 멕시코(MEXBOL), 말레이시아(KLCI), 터키(XU100), 남아공(TOP40), 중국(SHCOMP), 대만(TWSE), 체코(PX), 러시아(RTSIS)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신흥시장 주요국 증시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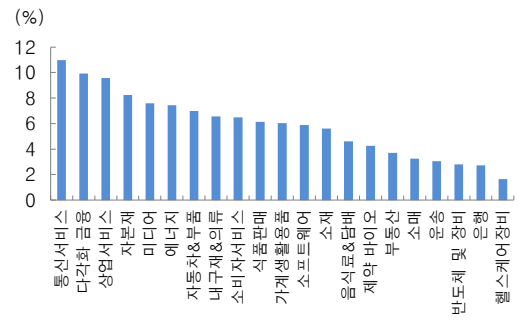


최근 5일간 미국 증시의 업종지수 등락률



주: S&P5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최근 5일간 중국 업종지수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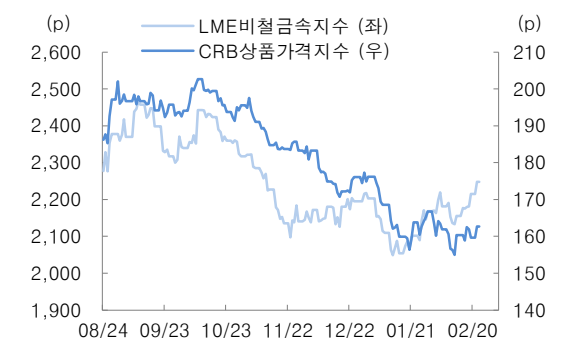
주: 상해 A시장의 종목들로 구성된 S&P/CTIC 300의 업종 지수임
자료: Bloomberg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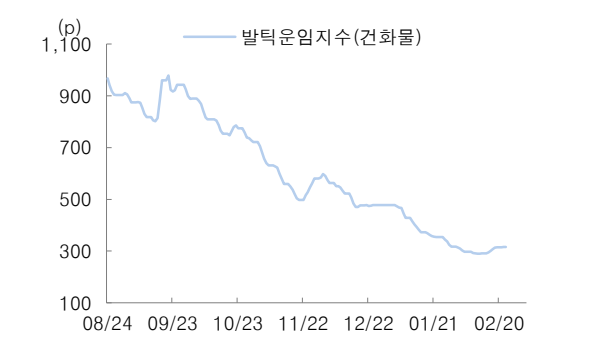
-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일대비 6.2% 오른 31.48 달러에 거래를 마감
- 금값은 4월 인도분이 전일 종가보다 1.70% 내린 온스당 1210.10달러에 거래를 마침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발틱 운임 지수(B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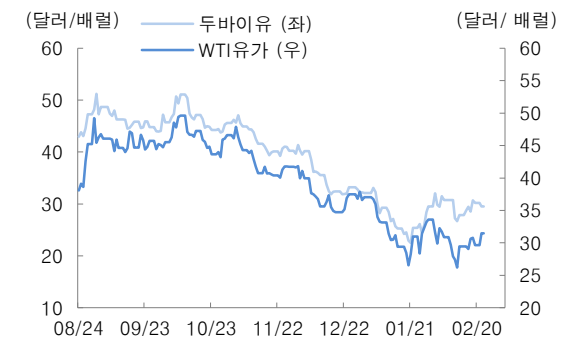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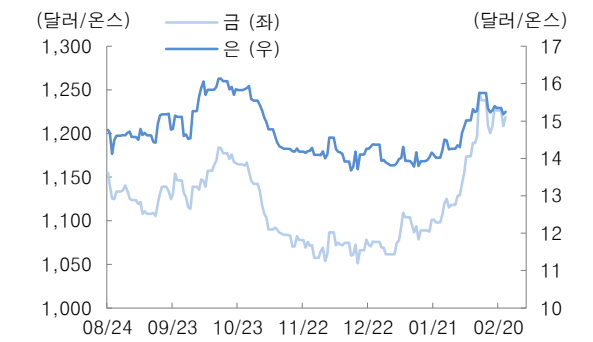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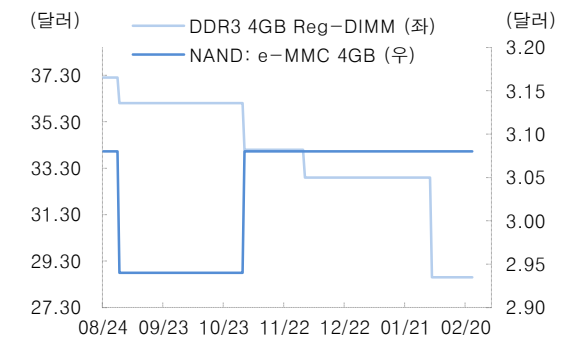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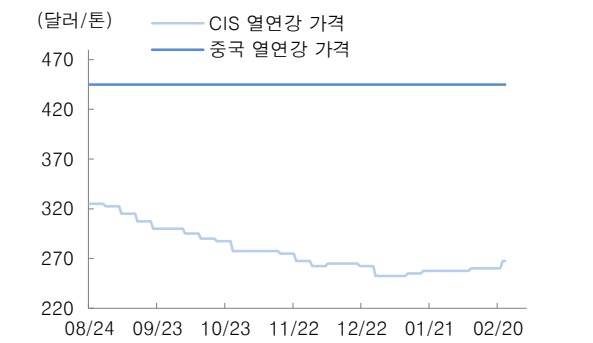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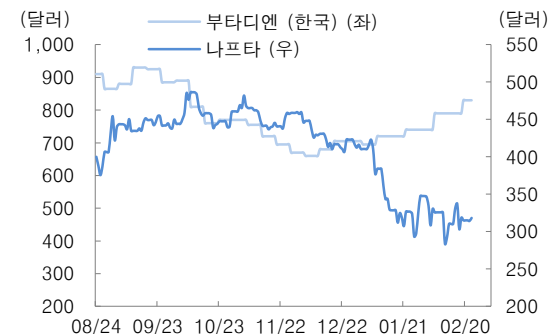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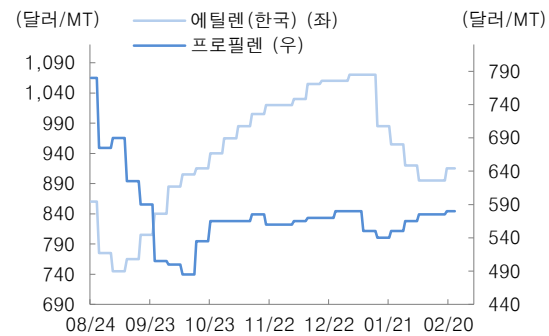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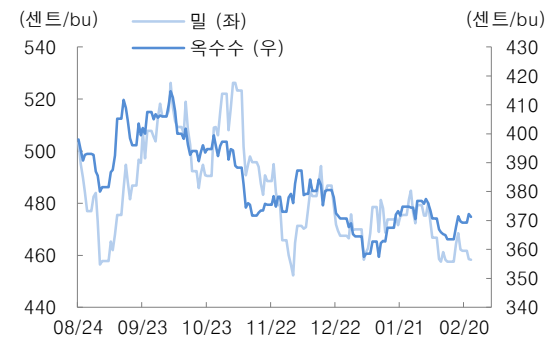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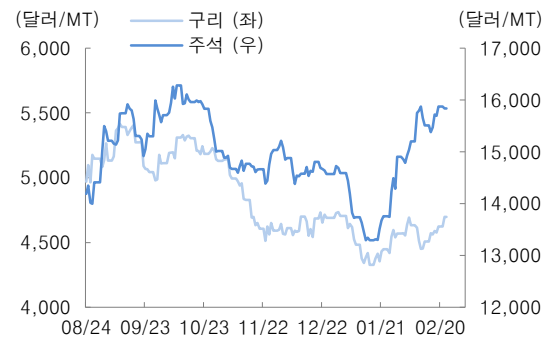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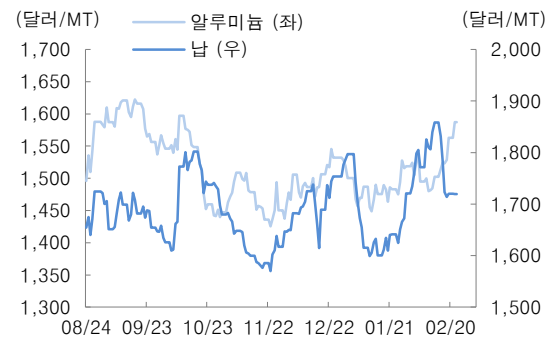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자료: Bloomberg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0원 내린 1231.10원에 장을 마감
- 23일 지표물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대비 0.1bp 오른 1.481%에 거래를 마감

▶ 환율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달러 대비)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6년 절상률 (원화 대비)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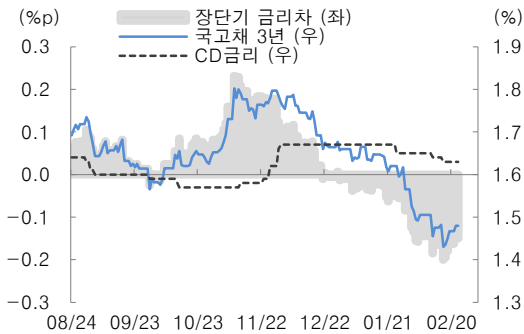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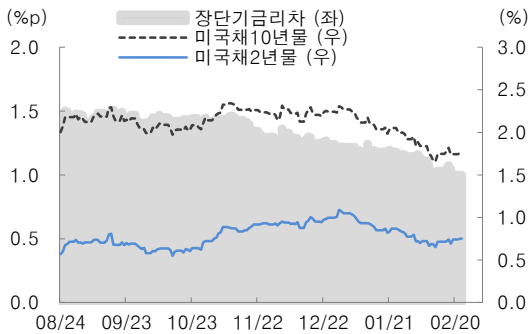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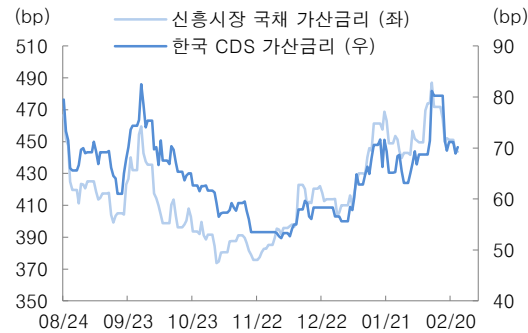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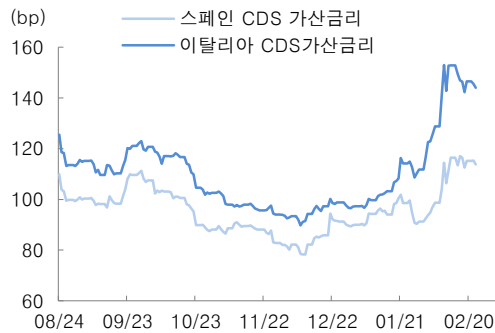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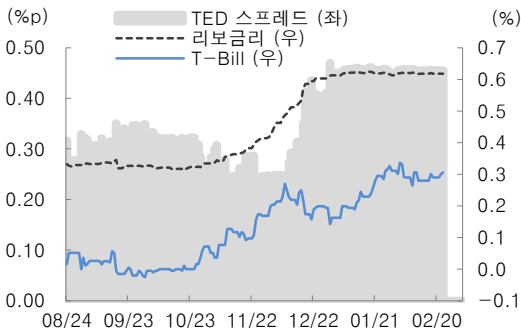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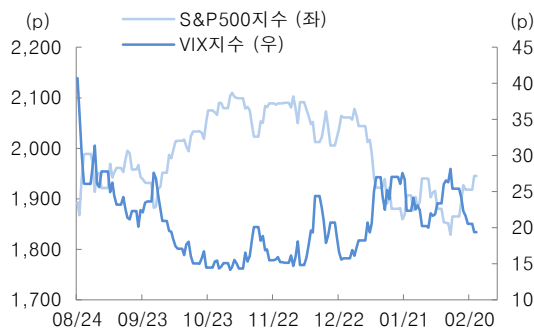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2/23	2/22	2/19	2/18	2/17	02월 누적	16년 누적
개인	-15.6	-53.7	-178.4	-302.0	-158.8	-1,811	-659
외국인	-6.7	33.5	166.9	85.8	-22.1	-149	-3,116
기관계	-52.4	-47.3	-68.4	136.8	69.4	1,517	4,654
금융투자	21.1	9.5	-48.3	64.6	-57.1	1,057	778
보험	15.3	7.1	-2.9	36.5	27.9	257	2,709
투신	-6.2	-4.5	-26.8	0.5	95.1	318	1,516
은행	-3.1	1.0	-0.5	-2.3	-14.1	-85	-154
기타금융	1.0	-2.3	-0.9	-2.5	-7.4	-10	15
연기금	-30.4	-54.5	54.8	-10.0	-64.1	-21	-59
사모펀드	-48.9	0.2	4.0	45.1	87.4	68	100
국가지자체	-1.1	-3.8	-47.7	4.9	1.8	-66	-252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SK 텔레콤	23.1	삼성생명	19.7
SK 이노베이션	22.1	삼성전자	19.5
POSCO	21.7	호텔신라	13.7
CJ	17.5	삼성물산	10.5
현대차	13.9	유한양행	9.9
현대제철	10.6	LG	8.6
NAVER	9.6	LG 생활건강	7.1
GS	6.8	효성	7.0
LG 전자	6.5	기아차	6.7
우리은행	6.1	LG 화학	6.4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생명	18.4	삼성전자	32.4
SK 하이닉스	12.2	CJ	30.6
OCI	12.0	아모레퍼시픽	17.6
현대제철	11.0	LG 생활건강	13.6
롯데케미칼	10.8	삼성전기	10.6
LG 디스플레이	9.8	호텔신라	10.2
KB 금융	8.4	유한양행	9.6
LG	8.0	SK 텔레콤	9.4
POSCO	7.4	한국전력	8.8
NAVER	7.1	한미약품	8.5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카카오	9.7	셀트리온	11.3
로엔	5.7	CJ E&M	7.6
에스에프에이	2.8	컴투스	3.2
아이센스	2.2	제이콘텐트리	2.6
메디톡스	2.1	바이로메드	2.6
파트론	1.6	오스텝임플란트	2.5
CJ 오쇼핑	1.5	실리콘웍스	2.2
주성엔지니어링	1.5	코오롱생명과학	2.1
OCI 머티리얼즈	1.3	서울반도체	2.1
테라세미콘	1.2	인랩	1.9

자료: KOSCOM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골프존유원홀딩스	8.6	CJ E&M	20.5
한국토지신탁	2.9	제이콘텐트리	10.2
오스텝임플란트	2.4	컴투스	7.0
휴온스	1.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3
한글과컴퓨터	1.3	에스엠	3.9
아모텍	1.1	카카오	3.4
바디텍메드	1.0	씨젠	3.1
뉴트리바이오텍	0.9	더블유게임즈	3.1
다우데이타	0.9	셀트리온	2.6
서울옥션	0.8	로엔	2.5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단위: %, 십억원)						기관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LG 전자	85.6	5.0	삼성전자	160.7	-0.3	LG 디스플레이	97.6	6.6	삼성전자	81.2	-0.3
현대차	73.6	1.4	LG 디스플레이	66.3	6.6	SK 하이닉스	92.5	1.2	LG 생활건강	58.6	4.4
POSCO	64.8	4.7	삼성생명	56.6	-2.3	삼성물산	67.0	4.5	CJ	55.1	-0.2
SK 텔레콤	64.3	6.0	삼성물산	46.6	4.5	OCI	58.8	12.1	아모레퍼시픽	44.7	4.3
SK 이노베이션	59.3	7.6	삼성전자우	45.0	-0.8	삼성생명	54.6	-2.3	한국전력	35.4	1.8
한국전력	55.8	1.8	코스맥스	39.8	-3.2	KB 금융	43.7	-3.8	제일기획	35.2	-1.4
LG 생활건강	54.7	4.4	효성	30.7	6.3	효성	37.8	6.3	코스맥스	32.1	-3.2
LG 화학	51.6	5.1	GS 리테일	30.1	-0.6	롯데케미칼	35.5	9.2	현대산업	30.8	-4.6
현대중공업	42.5	0.5	KB 금융	28.3	-3.8	현대건설	34.2	4.0	호텔신라	30.6	-2.3
SK 하이닉스	32.9	1.2	SK	28.3	5.5	LG	31.2	4.3	현대해상	28.1	-1.2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단위: 백만달러)

구분	2/23	2/22	2/19	2/18	2/17	02월 누적	16년 누적
한국	-60.5	6.8	123.1	113.4	-67.8	-419	-2,747
대만	38.6	81.8	78.1	338.6	86.8	1,082	-621
인도	--	--	--	90.5	-42.8	-682	-2,384
태국	--	--	40.7	35.0	81.7	-13	-232
인도네시아	--	-39.9	-67.7	27.2	42.5	265	100
필리핀	1.0	-1.7	5.8	-16.8	-13.2	-49	-91
베트남	3.6	0.1	10.3	1.0	-7.2	-12	-71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 마켓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